

혁신도시 임대아파트 40.6%·오피스텔 64.6%가 '빈 집'

에너지밸리 기업 근로자에 지원 추진

전남도, 공급 대상자 확대 권의·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투자협약기업·소상공인 확대

전남도가 에너지밸리 투자기업에 대해 주거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임대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아직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밸리 투자

기업 주거지원을 위해 LH, 부영 등의 임대아파트 2656세대, 토담휴로즈 등 5개 오피스텔 970세대를 조사한 결과 각각 1577세대와 322세대가 현재 입주해있었다. 입주율은 59.4%와 35.4%에 불과했다. 이들 이외에 지식산업센터 1167실, 행복주택사

업 산업단지형 250호 등이 2019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근로자들이 이들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먼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재 30억원 이상 제조업중에서 10억원 이상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업중으로 늘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의하는 한편 추후 임대아파트가 부족할 경우

신규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기숙사로 임차할 경우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중 최대 80% 이내(1인당 최대 월 30만원)에서 지원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투자협약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산업단지 공용 통근 버스 임차·운영 지원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컨트롤타워 공식 활동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가 18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이계양 광주YMCA 이사장, 정영일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현영 광주시 청년위원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윤장현 광주시장, 문진수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지병문 전남대학교 총장,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남현일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재홍 조선대학교 총장, 장필수 광주·전남기자협회장. <광주시 제공>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21일 문화전당서 세계인권도시포럼...30개국 1천여명 참여

2016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오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식을 열고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주제로 30개국 62개 도시, 1000여명의 국내외 인권도시 대표, NGO,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인다.

개회식은 윤장현 시장의 개회사와 박경서 포럼추진위원장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되며, 시민 영상메시지도 전달된다. 이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간다의 엠마누엘 세룬조지 캄팔라 캄페시장, 요티 상해라 UN인권사무소 대표 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행복인가’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방안을 논의한다.

또 개회식 당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와 ‘광역시자체 인권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문화전당 컨퍼런스홀에서는 ‘도시권과

해비타트 III’라는 주제로 올해 10월 에라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리는 ‘UN 해비타트 III 회의’ 준비성격의 전문가 회의가 진행된다.

특별회의에서는 지방정부와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가 워크숍을 비롯해 자치단체 인권사례, 도시정책세션, NGO인권정책 평가 등의 세션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제회의는 환경, 여성, 장애, 사회적경제, 노인, 이주민, 어린이·청소년, 교육정책 등 8개 분야로 나눠 열린다.

포럼 기간 인권테마 프리지페스티벌 투어, 대인시장 ‘별장’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방문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8일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인권친화도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며 “문화전당을 찾은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필기자 cki@

똥똥해지는 대한민국... 10명중 3명 비만

10여년전보다 1.2%p 상승

식물성 지방 과다 섭취

외식이 늘고 기름진 음식 섭취율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용유 등을 통한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간한 ‘NH 축경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비만 인구 비율은 31.5%였다. 비만 인구 비율은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²)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 비율은 10여년 전인 2001년(30.3%)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비만 인구 비율보다도 6.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 역시 2001년 1881kcal에서 2014년 263kcal로 10% 가까이 늘었다. 성인 하루 평균 권장 칼로

리(2000kcal)를 웃도는 수준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말 그대로 평균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칼로리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변화는 한식 대신 서양식·중식 등 기름진 음식을, ‘집밥’ 대신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대 영양소 섭취비중은 탄수화물 64.5%, 단백질 14.5%로 각각 1.1%포인트, 0.6%포인트 줄어든 반면 지방은 20.9%로 1.7%포인트 증가했다. 절대량을 따져봐도 1인당 하루 평균 지방 공급량은 2001년 83.9g에서 2014년 98.27g으로 14.37g(17%)이나 늘었다.

지방 종류별로 식물성·동물성 지방 모두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지방 섭취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식물성 지방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식용유 등으로 조리한 음식 종류가 크게 늘면서 2014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식물성 지방 공급량은 2001년(58.2g)보다 10g 이상 늘어난 68.5g이었다. /연필뉴스

화순 동북호~광주 용연정수장 물길 열려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준공...연간 34억 절감 기대

광주 시민 식수원인 전남 화순 동북호에서 광주 동구 용연정수장을 연결하는 새 물길이 45년 만에 뚫렸다.

광주시는 18일 동구 용연 정수장에서 자연유하식 도수(導水)터널 건설공사 및 용연 정수장 개량공사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공사에 들어간 지 6년 9개월 만이다. 도수터널 공사 예산 845억원이 투입됐다. 정수 처리능력을 1일 24만에서 6만t 증설, 30만t으로 용연 정수장 개량공사는 449억원이 들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월 한 달 간 물을 직접 흘려보내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운전을 거쳤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구충근 화순군수,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도수터널의 가장 큰 특징은 동북호와 용연정수장의 고도차를 이용, 수압과 중력만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자연유하식(自然流下式)’ 방식, 자연친화형이다. 산 높이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530m, 낮은 곳은 82m에서 관로가 지난다.

화순 안양산, 무등산 자락 등을 관통하는 길이만도 장정 12.068km에 이른다. 터널 직경은 사람이 서서 걸어야 할 수

는 2.1m이다. 초당 평균 1.28m의 속도로 동북호에서 출발한 원수(源水)가 정수장까지 도달하는 데 2시간 36분이 걸린다. 광주시가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은 개칭 이래 처음이다. 특히 10km가 넘는 긴 거리를 중간에 가압(加壓)장치 없이 원수(源水)로 보낸 경우는 동북 도수터널이 국내 최초다.

자연유하식은 물을 퍼서 보내는 동력비(전력), 인건비, 유지비 등이 거의 없어 연간 34억6000여만원 경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터널 준공 후 23년이 되는 2039년에는 공사비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수터널과 함께 47m 높이의 취수탑도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건설됐다. 일정한 위치에 고정해 있는 기존 시설과는 달리 저수율에 따라 취수량(取水口)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내에 단 4곳만 설치된 시설로, 깨끗한 층의 물을 찾아 선택적으로 물을 뽑아올릴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다. 도수터널 공사에 맞춰 용연정수장 처리시설 증설 공사도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동북호에서 1일 30만t, 주암호에서 17만t 등을 받아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전문의 연봉 1억3천만원 ‘전국 최저’

전남 1억7천만원 ‘중위권’

울산 2억6300만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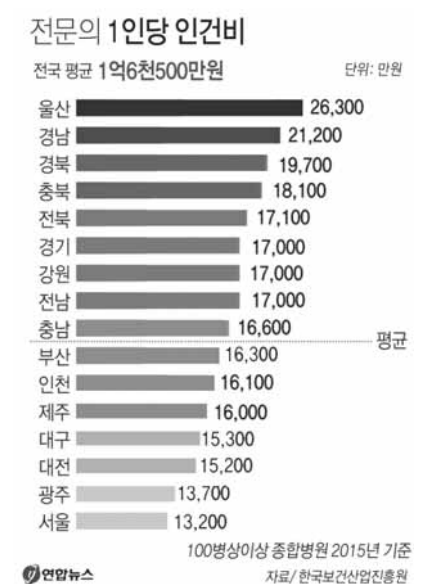
광주지역은 의사 연봉이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병원과 의사 수가 많은 탓에 연봉이 서울을 제외하곤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서울보다 지방이 최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의료 수요는 높는데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억63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억32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1억7000만원이었으며, 광주는 1억3700만원으로 울산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방 병원이 의사 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267명인 데 비해 경북 116명, 울산 123명 등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전국 평균은 172명이다. 광주는



10만명당 의사 수가 약 230명으로 타지역보다 많아 연봉도 그만큼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의 인건비는 연평균 5.2%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 평균 소득 증가율(3.2%)보다 높다. 그 결과 지방 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732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277건)의 3배 수준이다. /채희종기자 chae@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 (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검은 보라색 상의 진퍼와 옅은 초록색 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산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화산군 도암면 대지498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접 현목전 건축가능 ▶ 감정이 6천1백만원 최저가 4천5백만원
- 나주시 경현동 대지84평 포장도로접자연녹지지역 동산대인근 주변환경 양호 평당 38만원 ▶ 감정이 3천2백 최저가 3천2백만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북구 중흥동 광주역 8차선대로변 상가 2층건물 136평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이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 토지, 병원, 사옥, 창고부지 매매상당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큰도로변 우리은행옆 3층상가250평 토지 17평 병원 사옥, 상가추천 ▶ 감정이 2억3천 최저가 15억원
-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건너편 대로변접 지하 1층~상상 3층 근린시설 100평 토지 100평 ▶ 감정이 10억원 최저가 7억원
- 전남 보성군 인로잇음 편백및 삼나무식재된 투자가치우수 ▶ 감정이 5천4백만원 최저가 3천8백만원
- 북구 용봉동 4층중 3층복합상가 건물 30평 토지 18평 사무실추천 ▶ 감정이 1억2천5백만원 최저가 3천7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뀐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교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투자 물건추천주 강의!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7. 18(월) ~ 2016. 9. 9(금)
-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